

여성의 상품화, 왜곡된 성의식 조장하는 '성교육' 만화

'무척 야한' 몇몇 만화 규제 없이 출판, 무방비 상태에서 읽혀져

황재숙/전교조 초등교과 연구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이 학교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동화와 만화 등의 도서들이 별 규제 없이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도서들은 청소년 특히 국민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보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주고 있는 현실이다. 동화 또는 만화로 나오고 있는 성교육도서들은 심지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하기도 하고, 청소년 연령층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일반화돼 있지 않는 성문 제까지 아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에게 적절한 성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편집자주〉

근래에 와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성교육 동화(만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형서점의 어린이 도서 진열대나 학교 앞 문방구점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들 도서들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 어느 것은 제목만 다를 뿐 글과 그림이 똑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복사판이 나올 정도로 성교육동화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도 그동안 어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성에 대한

2.4%), 〈알고 싶어요(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읽은 후의 느낌은 도움이 되었다(33.9%), 재미있었다(15.6%), 저절리라고 생각되었다(21.0%), 쑥스럽고 창피했다(20.5%), 괜히 읽었다(9.0%)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반반씩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상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8.5%가 월경에 대한 내용을 적었고, 14.5%가 몸의 변화를 들고 있었으며,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은 그림, 아기는 어떻게 낳게 되는가, 포경수술



생각된다.

성교육만화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성교육도서로 오해하고 있는 드래곤 불은 현재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책이다. "무척 야하다"는 게 아이들 대부분의 평이다. 책의 크기도 다양해서 큰것부터 손바닥만한 포켓용까지 있는데 포켓용은 휴대용으로 수업시간에 몰래 보기도 한다.

인 센스언니와의 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게 섞여 있다. 방대한 성지식의 소개와 여성의 주체적 삶의 자세 권장 등은 긍정적이나 청소년에게 적당한 수준을 넘고 있으며, 적절치 못한 용어사용으로 의미 전달이 안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 그림에서도 하트모양을 배경으로 한 남녀의 벌은 몸은

다."

"빨리 끝나 버렸으면 여성을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에프터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남녀의 성에도 무엇인가로 결정지어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소라의 뱀시〉, 〈소라의 짝궁〉, 〈소라는 점장이〉 등 소라 시리즈물들은 엄격히 말해서 성교육동화는 아니지만 그릇된 이성관이나 성개념을 심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동도서 심의기준 강화해야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모르는 사이에 성교육만화 등을 통해 단편적인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신체적인 발육이 빠른 요즘 어린이들은 5, 6학년에서 월경, 사정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주변 퇴폐문화의 영향으로 성적인 자극을 강요받고 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맞게 되는 이들 성정보, 성자극은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지뎀이라도 무차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성만화에 대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각을 가진으로써 왜곡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에는 청소년 도서에 실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많다. 남성의 정력 감퇴에 대해 여성이 불평하는 장면.

◀ 실제로 5~6학년 여학생 중에는 가슴이 나온 학생이 많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다.

〈아담과 이브〉

급급한 몇몇 장사꾼들에 의해 급조된 내용은 상당부분 지적이 필요하다.

국교생의 60여%가 성교육만화 1~4권 읽어

지난 90년 10월에 동부초등교과연구부가 서울시내 국민학교 5, 6학년 8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8%의 어린이가 1~4권 이상의 성교육 동화를 읽었고, 읽게 된 동기는 친구에게 빌려서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부모님이 사줘서(15.8%), 자신이 직접 샀다(15.7%), 학급문고에서 빌려 봤다(1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열두살의 봄(23.4%)>, <소라의 봄(2

동화를 읽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 속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소라의 봄>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위기 때마다 몸을 노출시키는 여주인공 등장

소라의 봄은 만화로 그려져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이해도 도울 수 있다. 국민학교 5학년인 소라를 등장시켜서 여자의 신체 변화, 이성교제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성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등장인물의 서구적인 외형과 어린이답지 않은 옷차림, 머리모양 등이 눈에 거슬리고, 소라의 목욕하는 장면이나 상철이와의 포옹 그림도 국민학생에게는 적절치 못하다고

스런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수영복차림의 여자 인물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몸을 노출시켜 남자에게 대항한다. “조…, 좋아! 방법은 한 가지 뿐! 미인계를 쓰자.” 이런 대사와 함께 몸을 꼬면서 아양을 떨거나 옷을 벗는 장면은 선정적일 뿐더러 신체를 도구화, 상품화하는 것으로 그릇된 가치관을 어린이들에게 심어 줄 우려가 있다.

혼전 성교, 동성애 연령과 맞지 않는 내용 많아

최근에 출판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는 일본책을 번역한 것으로 국민학생 뿐 아니라 중고 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화책이다. 아직 월경도 시작하지 않은 지혜 양과 상담역

당연시, 혼전 성교·자위행위·동성애의 인정 등은 성인에게도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다.

“포경을 고치고 나서 좀더 인생을 릴렉스하게 지내는 것은 조금도 창피한 일이 아닌 것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탄생>, <아담과 이브> 등은 아동교육문화연구회가 발간한 만화책으로 부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에 비해 긍정적인

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아동도서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저질스런 내용의 책을 몰아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1990. 10. 17(수) 조선일보

상승가정과피벌 검거 경찰에
주부들 "남편오해" "인간화"의
필요
○...상승가정의
로 강도강간을
일삼아온가정과
괴범朴鉉龍(26)
이 조사를 받
고있는 서울중
앙경찰서 형사계사부실에 16
일 하루종일 안도를 담당하는 주부
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랐다.
주부들은 차에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강도만을 당한것으로
알고있던 남편이 강간도당
한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하
소연했다. 경찰은 차이 아닌
다른 범인에 의해 강도를 당
한 집의 주부들까지 남편의
오해를사게돼 항의전화가 더
많았으며, 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비밀보장을 약
속했으나 이번사건으로 영웅
한 가정까지 파괴될 부작용
을 날게됐다고 걱정했다.



▲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래곤 볼' 이 만화에서는 여주인공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체를 노출시키고 아양을 떨어 방어수단으로 삼는다.

▼ 팬티를 벗기는 정도는 이 만화에서는 예삿일로 자주 등장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화가 끝날 때까지 이끌고 간다.

